

제 28기 해외역사문화탐방



탐방지: 중국 상해, 가흥, 항저우(항주)

탐방일정: '25.05.21. ~ '25.05.24.(3박4일)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ERSITY

목차

탐방 일정 요약	(2)
----------	-----

탐방지 요약	(3)
--------	-----

숙소 및 기타 시설	(5)
------------	-----

일정 세부 내용

탐방 1일차	(6)
--------	-----

탐방 2일차	(13)
--------	------

탐방 3일차	(17)
--------	------

탐방 4일차	(20)
--------	------

탐방 일정 요약

1일차

인천공항 집결 ⇒ 상해 푸둥공항 도착 ⇒ 중식 ⇒ 예원, 옛거리 ⇒ 동방명주, 역사박물관 ⇒ 석식 ⇒ 호텔 도착 ⇒ 교류시간

2일차

가흥 이동 ⇒ 매만가(김구피난처),임시정부 요원 거주지 ⇒ 중식 ⇒ 항저우 이동 ⇒ 성황각, 성황묘 ⇒ 청하방 옛거리 ⇒ 석식 ⇒ 송성가무소 관람 ⇒ 호텔 도착

3일차

서호 이동 ⇒ 서호 유람선 관람 ⇒ 중식 ⇒ 항저우 이동 ⇒ 항저우 임시정부청사 ⇒ 석식 ⇒ 황포강 유람선 투어 ⇒ 상해 이동 ⇒ 호텔 도착

4일차

노신 공원(홍커우 공원), 윤봉길의사 생애사적 전시관 ⇒ 만국공묘 ⇒ 상해 임시정부 청사 ⇒ 신천지, 외탄 ⇒ 중식 ⇒ 푸둥 공항 도착 ⇒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탐방지 요약

예원, 옛거리 -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 세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의 건축물들이 들어가 있음, 중국에서의 권력교체와 가문 변천을 반영하여 정원의 모습이 달라짐.

동방명주, 역사 박물관 - 상해의 랜드마크로 468M의 높이로 내부에서는 354M의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음. 내부의 지하1층에는 역사박물관이 함께있어 상해의 사회, 문화, 상업의 발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매만가(김구피난처) - 일본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김구선생이 은신했던 피난처로,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피난하기 위해 감시하던 창문이나 도주로등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임시정부 요원 거주지 - 김구선생 가족을 비롯한 임시정부요원들, 독립운동가들이 체류했던 곳으로 비좁은 내부에서 당시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요원들의 일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성황각, 성황묘 - 중국의 4대 누각중 하나로 시회를 열던 전통 문화 공간이다. 서호등 시내 전경을 조망 할 수 있으며 중국 전통의 건축양식을 확인 할 수 있다. 성황묘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당으로 당시의 종교 및 민속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다.

청하방 옛거리 - 서민들의 문화를 지켜볼 수 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전통상점, 골동품가게, 지역먹거리 등 중국의 서민 정취를 체험 할 수 있다.

송성가무쇼 - 중국의 전통 문화 및 설화를 대형 무대공연으로 만든 쇼로서 중국만의 화려한 무대연출과 음악으로 중국인들의 감성과 미학을 체험 할 수 있다.

서호 유람선 - 자연과 문화의 조화를 어우르는 명승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유람선을 타고 다니며 많은 문화유산들을 배에서 구경 할 수 있다.

항저우 임시정부청사 - 상해에서 이전하여 활동한 임시정부청사로 주변은 한적한 마을로서 조용히 독립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지형이었으며, 전통가옥의 형태로 남아있다.

황포강, 외탄 - 상해를 가로지르는 강으로 유람선을 타며 상해의 주요 건축물들을 관람 할 수 있다. 상해의 야경 명소로 사진촬영의 명소이다.

윤봉길의사 생애사적 전시관(홍커우 공원) - 윤봉길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진 곳으로 상징적인 장소이다. 역사적 장소로서 보존되고 있으며, 공원 안은 중국의 일반적인 시민들도 들어와 산책이나 체조를 즐기며 생활 할 수 있는 반경안에 있다.

만국공묘 - 외국인 공동묘지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이다.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지답게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다.

신천지 - 신천지는 중국 MZ세대들의 명소로써 카페거리와 고즈넉한 느낌의 건물들로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다.

숙소 및 기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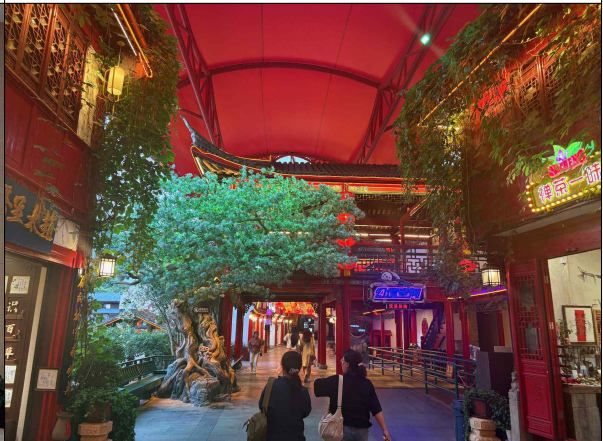
상해 그랜드 매디션 호텔



항저우 마르코폴로 호텔



중국 공산당 기념관



송성 테마파크



황포강 유람선 선착장



송성가무쇼 대관람장

05.21(수) 1일차

제 28기 해외역사문화탐방...그 시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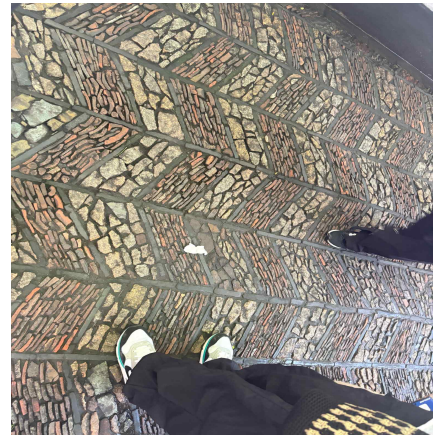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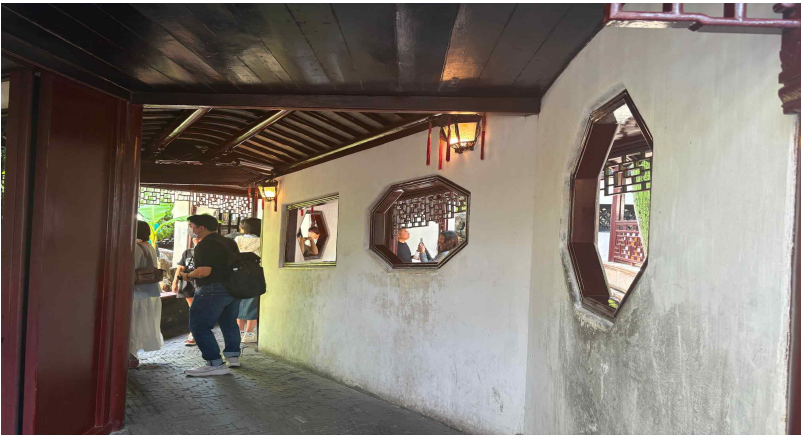
이른 새벽....집합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노곤한 몸을 이끌고 맞이한 인천공항은 낯선 느낌이 가득했다. 피곤에 이끌려 의자에 몸을 누이며 눈을 붙이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인기척에 금새 눈을 뜨고 만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는 것일까? 평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몸을 맡기기 위해 바빠 움직인다. 참가자들이 슬슬 모이고 각자 설렘과 긴장으로 얼굴표정이 상기된다. 하지만 비행기에서의 이륙과 착륙만큼 긴장되지는 않았으리라...비행기를 많이 타봤거나 해외에 많이 가봤던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새로운 경험이 뇌를 자극해 조그만 흥분 상태에 이르게 한다. 땅에 기체가 닿는 느낌에 경직된 몸이 슬슬 풀린다. 중국 공항의 가이드를 따라 버스를 타러 가는길에 보이는 그림으로 가득 찬 공항의 창문이 시선을 빼앗는다.

노랑, 파랑, 초록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며 가이드의 간단한 설명을 들어본다. 중국과 한국의 시차는 1시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지만 시차가 난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외제차로 가득한 거리는 우리가 알던 중국과는 다른 인상을 심어준다. 그리고 유독 번호판에 눈이 들어온다. 노랑색, 초록색, 파란색. 세가지로 이루어진 화려한 번호판이다. 중국의 일반적인 승용차(6인승 이하)는 대부분 파란색이다. 그리고 7인승 부터는 노란색 번호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번호판과 초록색의 번호판이 보인다. 이것은 중국의 전기차 도입 목표를 보여준다.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을 전기차로 바꾼다는 것은 현대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선진국으로써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10%정도만 전기차일 정도로 그 진행율은 아직 낮다. 또 전동 오토바이나 3륜차 등 소형 이동수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그 전용도로가 따로 있다는 것이 땅이 넓은 대륙으로써의 상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남아나는 땅이 있을까?

중국 문화의 첫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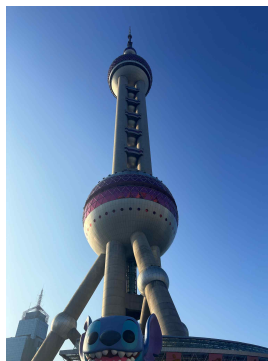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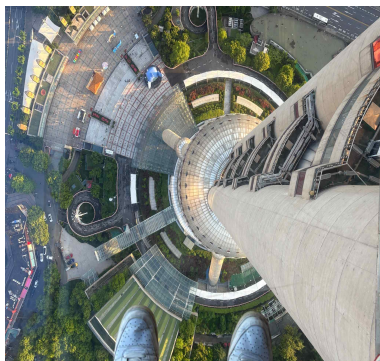
타국의 문화를 가장 빠르게 느껴보는 방법은 직접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습도가 높아 땀을 많이 흘리게 만드는 날씨였다.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음식이 자극적이고 많이 줬으리라....중국의 음식 문화는 많은 음식을 원형 테이블 위에 놓고 그 테이블을 돌려 본인의 앞접시에 덜어 먹는 형식이다. 이는 중국음식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한번쯤은 봤을 법한 방식이었다. 또, 중국은 차 문화가 발달하고 찬 물은 먹지 않는다. 때문에 콜라, 맥주같은 한국에서는 차갑게 해서 마실 음료들이 미지근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다. 물 또한 찬물이 없고 따뜻한 물로 나오며, 찬물을 먹고 싶다면 얼음을 따로 부탁하여 물과 얼음을 섞어 찬물로 만들어 마셔야 하는 귀찮음이 있다.

벚속을 채웠으니 이제 소화를 시켜보자. 예원이라는 정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약 1만평 이상의 땅이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잠깐! 중국의 땅은 모두 국가소유의 땅이다. 그렇다면 이 곳은 중국 소유인 것일까? 땅은 국가의 소유이지만 건물은 개인이 소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정원은 가문을 따라 대대로 물려받았으리라....예원은 한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만들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완공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뒤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소유자가 옮겨가며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바뀌게 되었다.

예원의 건물들은 문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바닥조차 일반 바닥이 아니고 돌을 일일이 깨서 만들거나 기와를 깨서 만들었다. 이것은 이 지역이 비가 많이 오기에 배수를 위함과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은 여성들의 신발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졌다. 물위의 다리 또한 곧지 않고 구불구불한데 이것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강시를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구불구불 하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또 지붕에는 용과 박쥐같은 동물의 형상을 한 조형물들이 많은데 용은 화재가 나면 물을 뿜어 화재를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과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기에 그 죄의식으로부터 보호를 받기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박쥐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복을 상징하기에 그 조형물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문화는 중국의 종교나 전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위 아래 위 위 아래





동방명주는 상해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타워이다. 예전에 TV프로그램인 ‘런닝 맨’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다고 할 정도로 상해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명소중 한곳이다. 351미터의 타워는 아시아에서 우뚝 솟은 용 한 마리를 상징적으로 만든 만큼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면 끝과 끝이 한번에 찍히지 않을 정도로 그 거대함이 숨막히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조차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을 정도로 편의성까지 갖추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지상에서 몇 M인지 스크린으로 나오며 점점 숫자가 높아질수록 비행기 탔을 때 오는 귀의 먹먹함이 느껴졌다. 위에서 보는 상해의 모습은 그 도시의 전경이 다 보일 정도였다.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을 보고 있자니 건물들의 형상이 문득 눈에 들어왔다. 상해의 건물들은 같은 모양의 건물이 없다. 각자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이끈다. 이것은 중국의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데 경제 중심의 도시인 상해와 정치 중심의 도시인 북경의 차이로도 보인다. 중국 경제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상해는 100년안에 발전이 되었다. 이것은 아편전쟁 이후에 이러한 건물들을 짓게 만들었는데 상해는 산도 없고 불거리가 없기에 영국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기에 불거리가 없어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한다. 이런 정책이 잘 들어맞았다고 생각이 들게 만든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이게 맞나 하는 정책들이 몇세대 이후에는 정말 신의한수라고 볼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꼭대기층에서 한층 내려오면 전망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사진명소로 바닥이 통 유리로 되어 하늘에 붕 떠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높은 곳에 있다는 흥분감과 유리로 된 바닥에 서있는 공포감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으리라.

지하 1층에는 상해의 발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었다. 이 전시관은 우리나라 역사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시대에 이르게 하는 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였다. 특히 옛날 중국 영화에서 나오던 장면같은 모습들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편을 즐기는 사람들, 차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발전하는 상해의 거리, 중국의 공연들, 무도회장, 법원 등과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 문화와의 차이를 생각하며 관람하게 만들었다. 특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조그만 테이블에도 마주보지 않았다.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차를 즐기거나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였다면 마주보지 않는다면 예의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있기에 그 문화가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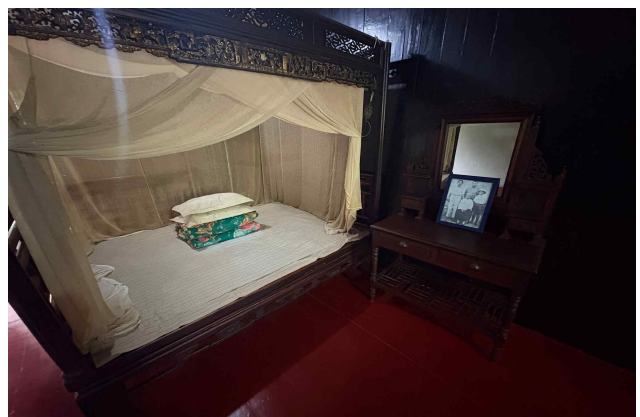
대화



‘대화만이 문화의 불화를 아주 빠르게 변화시키지 모험엔 언제나 위험이 따라 두려운 경험을 몸소 체험’ 한국 가수의 노래 가사중의 일부이다. 대화는 서로를 알아감에 있어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보통 우리들은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많이 한다. 특히 지금처럼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많은 대화를 만든다. 이런 대화들로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묻는다.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일대일의 대화, 몇몇 사람들과의 대화. 사람들과의 대화로 서로가 느낀 감정들을 공유하며 첫날의 하루는 저물어간다.

05.22(목) 2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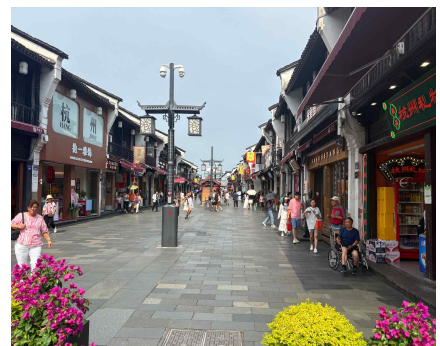
도망가자



‘도망’ 단어만 들어도 항상 조심해야 하고 숨죽여 살며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다. 독립운동가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일본군을 피해 살던 김구선생의 피난처에서는 그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다.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지만 피난처 안의 언제든 도망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장치들은 오히려 본인의 행동을 격려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치밀하게 되어 있었다. 창으로 한눈에 누가 오는지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 하며, 2층에서 바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 침대 옆에는 바닥처럼 만들어놓은 탈출구가 있었다. 하물며 건물 뒤의 배는 어떠한가. 앞에서 일본군이 오더라도 뒤쪽의 배로 언제든 탈출할 수 있었으리라. 이러한 노력들이 끝까지 붙잡히지 않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온다.

임시정부 요원들은 또 어떠한가. 김구선생만큼 도망갈 수 있게는 만들지 않았지만 작은 집에서 3~4가구가 모여 방한칸에 두세명씩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김구선생의 어머니와 아들의 거처또한 그곳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이 독립을 위해 김구선생과 함께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며 살았는지 그 일상의 흔적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었다. 높은 습도에 불쾌지수는 정상을 향하지만 마음속 한 칸에 간직해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은 그 끝이 없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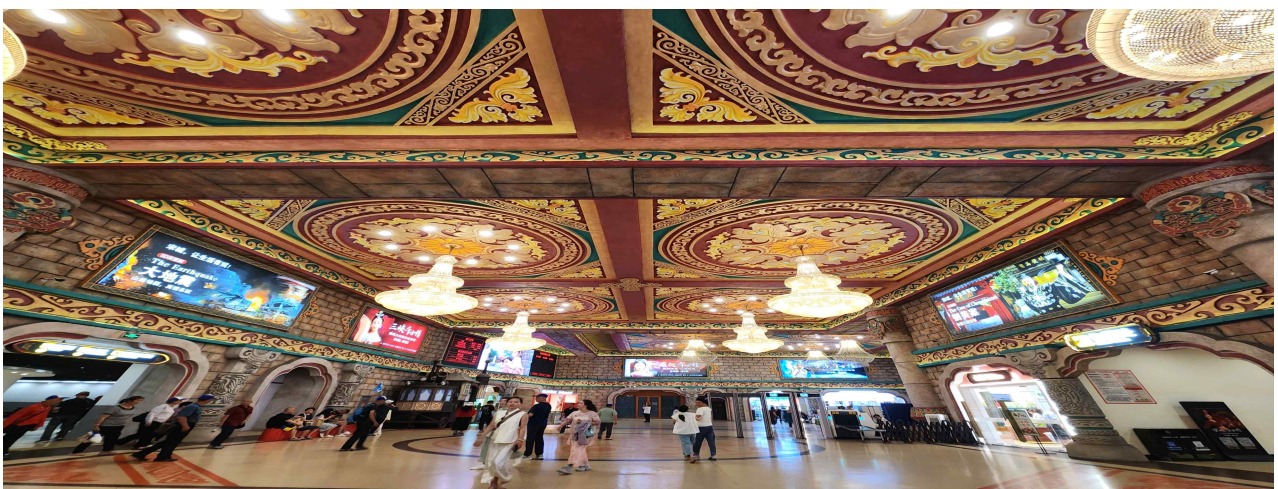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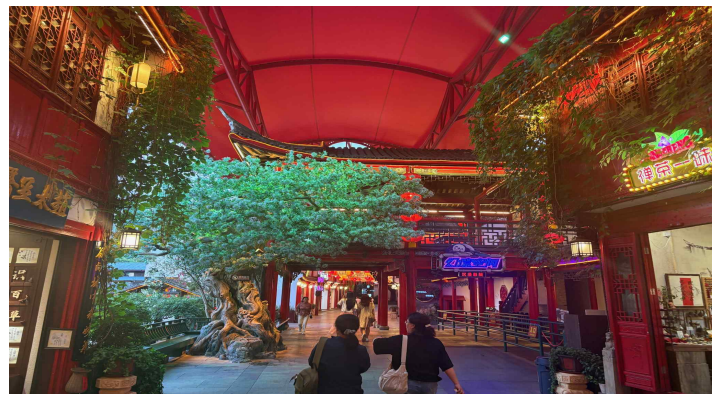
바람을 느끼며...



성황각은 그 이름만큼이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징적인 곳이다. 올라가는 언덕길은 길고 힘들지만 오르다보면 마주하는 건물은 그 힘듦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주었다. 내부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6층 건물이었지만 6층에 올라가서도 바깥의 계단을 통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 위에서 보는 풍경은 산과 도시가 함께 보이는 풍경이었고 그 풍경들이 흥분한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이곳 또한 풍경이 좋고 사진 명소이기도 해서 웨딩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되었다. 아래쪽에 위치한 예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들은 예전 시대의 중국인들의 사회상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바로 옆에 있는 성황묘 안에서는 중국인들의 종교문화와 불상을 통한 과거의 종교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었다.

아래구간에는 청하방 옛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관광객을 위해 여러 가지 물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경제중심의 도시인 상해의 근처답게 활발한 경제활동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옛거리 답게 중국 전통의 조각품들과 많은 공예품들이 판매되고, 전통 먹거리, 해외관광객을 위한 유명한 캐릭터를 오마주한 상품들, 중국의 전통주 등 많은 상품들이 즐비하게 있으며, 이곳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예전부터 사용된 건물들로서 중국의 예전 건축문화와 서민들의 문화를 동시에 느껴볼 수 있었다.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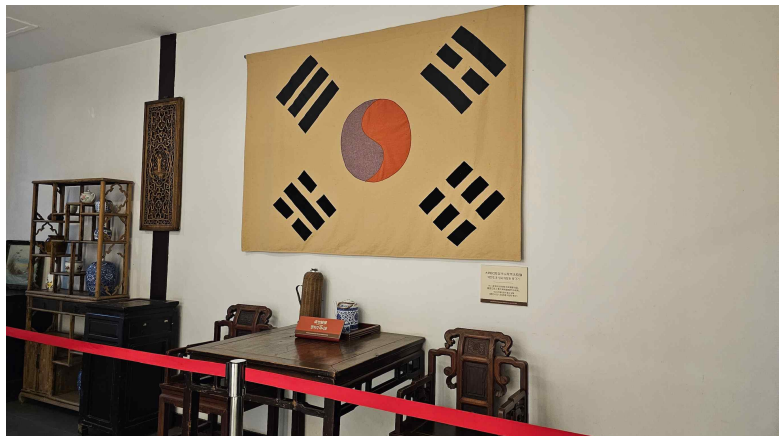


송성테마파크 안에 있는 공연장은 테마파크를 즐기고 들어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테마파크는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집중시키는 조형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유적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입구는 눈 깜박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매표소 출입구를 통과하면 테마파크가 나오며 합성을 지르면 나오는 분수부터 시작해서 불을 뿜는 화산과 익스트림액티비티를 즐길수 있는 체험존 등 많은 즐길거리들이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게 했다.

송성 가무쇼는 세계적인 가무쇼중 하나이다. 관객들의 호응을 돋구기 위해 공연 전 이루어지는 서커스 같은 쇼는 관객의 집중도를 높여준다. 총 4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전설들을 가무쇼로 만든 것이다. 1막에서는 황제의 권력을 의미하며 황제를 축하하기 위해 인도에서 온 댄스단이 나오며 대형군무를 감상 할 수 있다. 또 한국의 아리랑도 나오니 이 부분에서는 일명 ‘국뽕’을 느끼게 해주었다. 2막에서는 전쟁의 영웅이 나오며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굉장한 포스를 느끼게 했다. 3막은 사랑이야기로 물과 관련된 연출이 돋보였는데 이 연출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직접 보기를 추천할 정도이다. 특히 레이저와 드라이아이스를 통해 만들어낸 신비함을 주는 연출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4막에서는 중국의 차 문화를 표현하였는데 이 차를 VVIP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직접 서빙하는 연출과 서비스를 해주었다. 전반적으로 무대 규모나 시설, 연출은 이루 말 할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고 중국 여행을 고민한다면 0순위로 추천해 주고 싶은 공연이었다.

05.23(금) 3일차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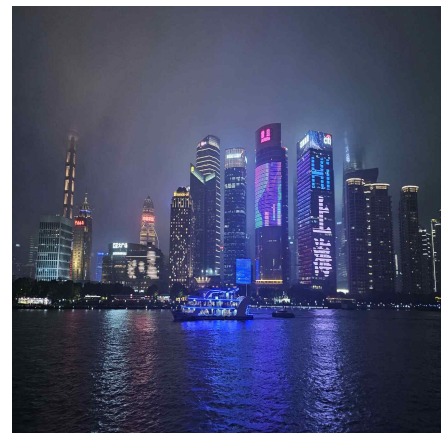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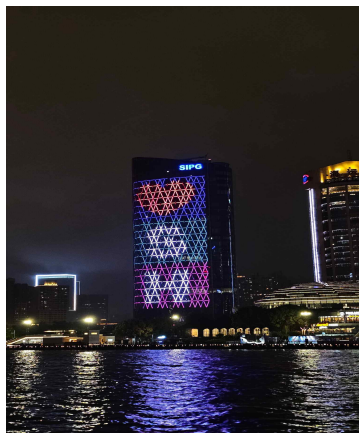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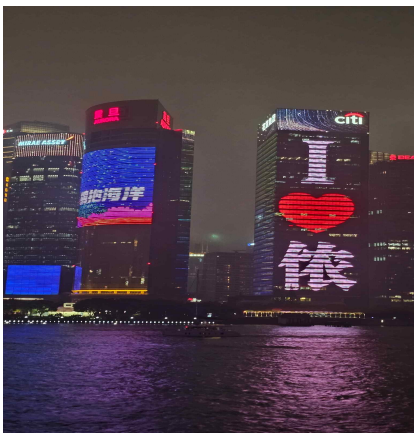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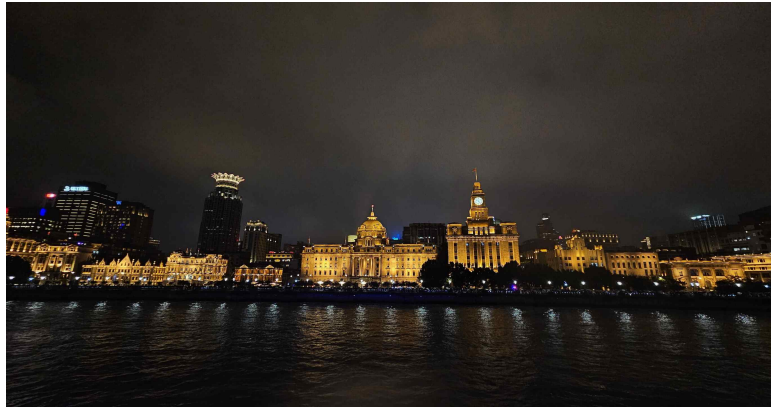


‘건물’와 ‘자연’이란 단어는 느낌이 상반되지만 함께 있을 때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궁금하다. 서호는 옛 건물들과 석탑들이 있고, 볼 수 있는 곳이다. 자연경관이 엄청나고 사람들을 무서워 하지 않는 다람쥐는 지역 명물로 유명하다. 많은 관광객들로 붐빈 이 곳은 높은 숲도의 숲길을 걸으면서도 물냄새가 진하게 퍼져 올 정도이다. 흡사 생태공원을 방불케하는 느낌이지만 중간중간 보이는 건물들이 관광지라는 것을 다시 인식 시켜준다. 자연의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유람선을 타고 서호를 돌며 주변의 건물들과 자연경관을 구경해본다. 기관사의 스무스한 운전으로 여객선은 물살을 가르며 출발한다. 이 여객선은 중국의 개발정책에 맞추어 전기로 운행하는 여객선으로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기에 환경특화적이기에 서호의 자연경관을 지키기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리라. 서호 주변의 건물들 중 사람이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곳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유명인, 중국의 고위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별장같은 개념이라고 한다. 이러한 유명한 관광지에 별장이 있을 정도라면 그 영향력이 꽤나 높을 것이다. 혹여나 사람이 보인다면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중간중간 보다보니 이전에 방문했었던 성황각도 보이고 송성가무소에서 나왔던 전설의 무대가 된 타워, 전시관에서 설명을 들었던 물 위에 떠있는 석탑들이 보였다. 사전에 정보를 알고 직접 보게되니 눈에 잘 들어왔다. 특히 구조물들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지어져 있고 잘 어우러져 있기에 이 서호라는 곳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항저우의 임시정부청사는 삼엄한 경비아래 관리가 되고 있었다. 비록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청사지만 외국의 관리아래에 있기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는 없었다. 특히 독립기념관에서 배포한 영상과 가이드의 설명으로 진행된 임시정부 청사의 내부모습은 사진촬영이 되지않아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담아야 했다. 좋지 않은 머리이지만 이럴때에는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청사의 역사와 주요사건들을 머릿속에 담았다.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관광 상품들이 답례품 형식으로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항저우 임시정부청사에 일정 기부금을 내면, 그 답례품으로 관광 상품을 받을 수 있었다. 구매라는 이름보다 기부 답례품이라고 하는 말이 나도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있게 만든 임시정부청사에 조금이나가 기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뿌듯하기도 하였다. 내가 받은 답례품은 김구선생의 필체가 적힌 부채였는데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장식용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In the Rain





상해의 야경은 익히 말로만 들어왔다. 도시의 야경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저 건물들이 다 다르기에 그 야경이 조금 색다르지 않을까? 상해의 야경을 감상하기 전 나의 생각은 다른사람들과 다를바 없었다.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본다니 굉장히 신기한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머리를 적시고 드럼 치듯이 우산을 툭툭 두드리는 이 비가 나의 야경을 방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유람선이 출발할 때까지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황푸강의 바람, 그리고 짙은 안개가 나의 걱정을 더욱 상기시켰다. 비록 하늘을 내가 조종 할 수 없지만 인생에 단 한번뿐일지 모를 유람선의 야경은 포기할 수 없는 나이기에 비를 맞으면서도 유람선의 가장 꼭대기층에 올라 감상을 해본다. 안개가 살짝 낀 것이 오히려 운치가 있게 느껴지며 세차게 머리를 적시던 비는 어느덧 더 이상 옷을 적시지 않는다. 상해의 주요 건물들을 돌아보며 건물들의 외부 전기는 국가에서 지원해줄만큼 야경 관광 명소로써 그 입지가 어느정도인지 머리에 각인시켜주며 어느덧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05.24(토) 4일차

무거운 마음



홍커우 공원은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폭탄을 던진 장소로 유명하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 실제로 윤봉길의사는 도시락폭탄과 물통폭탄 두종류를 들고 갔다. 물통폭탄은 사살용, 도시락폭탄은 예비용 또는 자결용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던진 폭탄은 물통이었으며 도시락폭탄은 불발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인에게 알리게 되어 독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홍커우 공원에는 윤봉길 의사의 전시관이 있는데 중국이기에 대부분의 언어가 한문으로 되어있지만 윤봉길의사 전시관 가는 표지판이나 매표소는 한글로 되어있었다. 이는 하나의 작은 소동이 아닌 우리나라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윤봉길 의사를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도 크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사람들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생각이 어떠할까 문득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 여행을 간 우리나라 관광객들중에 홍커우공원에 윤봉길의사 전시관에 간 사람들이 있다면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었으면 했다. 전시관은 2층으로 되어있었으며 1층에는 전시관 2층은 영상홍보관으로 되어있었다. 조그만 전시관이지만 그 공간만큼은 윤봉길의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국공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의 개념이다. 그만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지에서 한국인들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묘지답게 엄숙한 위기가 느껴졌지만 커다란 공원에 온 것처럼 관리도 잘 되어 있었다. 특히 대륙답게 커다란 나무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어 그 웅장함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상해의 구와 신



상해의 임시정부청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두었던 곳이다. 하지만 그 외관은 주변 주택단지와 어우러져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청사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우리나라의 입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실내에서는 역시나 사진등의 촬영은 되지않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 내부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되어 관람을 하고 있었다. 연예인도 방문해서 관람할 정도로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으리라 생각한다. 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 아이들이 보는 시야는 낮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의 역사를 보는 시야는 그 누구보다 높아보였다. 이미 다 큰 성인이지만 중국을 오더라도 이런 역사적인 곳을 방문하는 이는 많지 않을 터이기에 그 아이들의 방문이 달갑게 느껴지면서도 아직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고 느꼈다.

신천지는 상해에서 젊은층들이 가장 많이가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고급 카페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많은 쇼핑몰이 있으며, 근처에 예전 주택가가 있어 사진명소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그리고 근처에는 공화당 전시관이 있다. 주변에는 호수를 둘러싸고 수국이 펼쳐져 있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공원 산책가듯이 들리는 것 같다.

마무리



중국에서의 일정은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들었다. 특히 같은 아시아권에 있으며 비슷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게되면 세세한 부분이 다른 느낌이 있었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배울점이 많았다. 이번 탐방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특히 송성가무쇼에서의 극의 전개와 연출, 무대등은 문화예술경영학도로서 많은 부분에 영감과 인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문화재들과 중국 고유의 문화재들을 비교해보며 상대방의 문화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일반 시민들의 일상부터 대도시의 흐름까지 지역사회에서의 중국의 현실을 잘 느끼고 우리나라로 가져온다면 어떠한 부분을 적용할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미래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